

한 특수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 발달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지 정 훈* · 곽 승 철**

An Autoethnography on the Digital Literacy Education Experiences of a Special Education Teacher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Jee, Jeong-Hoon* · Kwak, Seung-Chul**

< Abstract >

The study described the experiences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special education teacher through an autoethnography. Based on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digital literacy education experience, teacher was able to know the digital literacy pattern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described about the efforts to change teaching activities, the personal experience of the values and meanings of collaborative approaches in relation to macro social and cultural context. The specific results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digital literacy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disproportionate, and teacher can see that this phenomenon has to be solved through education. Second, in order to teach digital literacy well, the exist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was updated to form a living lesson suitable for social change, which enabled him to become a teacher with practical knowledge.

* 서울 국사봉중학교 특수교사
Seoul Kuksabong Middle School

**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교신저자: sckwak@kongju.ac.kr)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rd, the advent of digital has changed education and classes and realized that digital literacy has become a new factor in achieving inclusive education. By reflecting on a teacher's educational experience from a reflective perspective, teacher wanted to show about the role of special teachers in digital society and the intrinsic value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Key Words : Development disabilities student, Special education teacher, Digital literacy education, Autoethnography

I. 들어가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정보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탄생한 새로운 디지털 매체가 주는 영향력은 기술 혁신을 넘어서 문화와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일상생활, 학습, 직업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매체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Gilster(1997)가 그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는데, 디지털화 된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정보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내림으로써 검증된 정보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 하위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논의가 다르지만 크게 물리적 접근성, 정보 검색 및 활용, 디지털 윤리성으로 나눌 수 있다(김수환, 김주훈, 김해영, 이운지, 2017). 특히,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끈 원동력으로 각종 매체의 디지털화가 논의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 역량으로 강조되었다(Schwab, 2016).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하듯, 최근 학생들은 또래와의 소통, 대중 매체, 사회 안팎에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물건을 구매하고, 목적지를 찾아 이동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방식조차 모두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즉,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술로 인한 편리함을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제공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는 발달장애학생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제한성을 AI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를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로의 진입과 참여가 용이해졌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은 SNS를 활용해서 친교활동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또래와의 여가 활동 및 미디어 활동 등을 참여하고 있으며(남미영, 이미숙, 201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이동, 의사소통 활동 등의 지역사회 생활이 점차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김창배, 2018). 장애로 인하여 가졌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사회통합



과정에서의 고립감을 디지털을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으며 비대면 상황과 익명성은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발달장애학생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발달장애학생들이 생활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생활기술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 어릴 때부터 디지털을 기반으로 자라난 세대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안정임, 서운경, 김성미, 2013). 장애 정도와 자발적 의사소통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발달장애학생 또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생활하고 SNS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생활 이면에는 무분별한 접근과 활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범주에서 신체적 폭력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이 많으며, 사이버 폭력 중에서도 SNS를 활용한 따돌림 및 언어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삼섭, 2016).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학생이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존재하였다. 또한, 발달장애학생들이 SNS에서 초상권 및 개인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미숙하여 교우갈등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즉, 디지털 공간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올바른 참여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하여 무분별하고 비윤리적인 디지털 사회 참여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발달장애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디지털 기반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디지털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석연과 이미숙(2016)은 지적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태블릿 PC 이용경험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태블릿 PC가 지적장애학생의 개인 일상적 즐거움과 학습에서의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정은과 송준만(2002)은 경도 지적장애학생의 웹정보 검색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요인을 정보 리터러시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정보 검색을 위한 6가지 학습자 요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건희와 조정민, 김소현, 서석진(2013)은 발달장애학생의 SNS활용에 대해 참여관찰법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사용방법을 지도하고 온라인상의 상호작용태도에 대해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발달장애학생들이 SNS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에 대한 적극성이 증가함을 발견하였고 SNS가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적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디지털 활용양상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관련 교육의 필요성,

사회 통합을 위한 생활기술로써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의 중요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매우 의미가 깊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은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과 기술적 사용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차원의 접근이 부족했다. 특히, 발달장애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내부자의 위치에서 경험적으로 제시하는데 다소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사로 근무하며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특수교육에서는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통해 개인의 경험에서 머무르지 않고 특수교육의 문화적 관점으로 확장을 시도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박계신, 2013; 이원희, 곽승철, 2014; 강윤아, 신현기, 2019). 이러한 선행연구와 더불어 나의 시도는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주소를 구체적으로 독자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교육당사자들이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의 특수교사의 기쁨, 딜레마 및 교육적 의미와 한계에 대해 독자에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 및 체계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발달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특수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으로서의 자문화기술지

최근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요구는 교육의 자발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연장선에서 실천적 교육연구자들은 학교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의 삶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묘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이동성, 2012). 나 또한 학교현장에서 살아가는 특수교사로서 내가 경험한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미시적 관점에서 나의 교육실천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동시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자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선택하였다.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자아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이해를 풀어낸다(김영천, 이동성, 2011). 이는 특수교사인 내가 연구자로서 나의 경험과 더불어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성찰하면서 동시에 나를 둘러싼 교육적 문제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



함으로써 교사로서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독자들은 저자와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비교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증할 수 있다(Ellis, 2004). 이러한 점에서 특수교사인 나의 경험을 자문화기술지로 풀어냄으로써 현장의 다른 교사들에게 비슷한 맥락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비교하면서 교육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Reed-Danahay(1997)는 자문화기술지 유형을 소수자 문화기술지(minority ethnography), 성찰적 문화기술지(reflective ethnography), 자전적 문화기술지(autobiographic ethnography)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 관점에서 본 연구를 바라보면, 특수교사로서 겪은 외적 경험을 토대로 반성적 성찰을 이뤄나가는 성찰적 문화기술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개인의 교육 경험을 사회문화적 변화의 맥락으로 확장하여 그 의미를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자전적 문화기술지라고 할 수 있다.

2. 자문화기술지의 연구자

자문화기술지는 한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므로 자문화기술지에서는 ‘연구자’라는 용어 대신 ‘나’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한다. ‘나’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독자들은 연구자의 이야기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천, 이동성, 2011).

나는 윈도우 95운영체제로 처음 컴퓨터를 접하고 중·고등학교 시절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싸이월드 세대로 도토리과 일촌 맷기로 학창시절을 보냈던 지난날의 추억을 간직한 채 현재는 스마트폰과 SNS로 학창시절을 보내는 중학생들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로 자리하고 있다. 2010년 특수교사로 발령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의 휴대전화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이 아닌 것으로 나뉘었으며 이는 장애학생에게도 적용된 가시적 변화였다. 그리고 스마트 러닝이라는 변화가 특수교육에 찾아오면서 디지털에 대한 나의 친숙함과 호기심은 스마트 러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012년 장애학생에 대한 스마트 러닝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당시 인공와우이식을 하고 통합교육을 선택한 청각장애학생이 많은 학교특성으로 스마트 러닝 시범교육을 경험했다. 그리고 1년 후 스마트 러닝에 대한 시범적 사업이 여러 가지 내·외부적 한계로 마무리 될 즈음 모두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었고 카카오톡(이하 카톡)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그 해 봄 스마트폰을 들고 해맑게 웃으며 입학한 자폐성장장애학생과 부모님의 의사소통에 대한 열망은 나를 또 다른 교육적 도전과제로 이끌었다. 자발화는 어렵지만 종종 카톡을 사용하는 자녀와의 카톡 주고받기는 자폐성장장애부모가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 가진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었다. 그렇게 새로운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었다. 1년 동안 카톡으로 자신의 위치를 말하고 적절한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 때 가졌던 학생과의 교

감과 반응, 좌절과 성장은 나를 한층 특수교사다운 특수교사로 만들었으며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가교를 놓았고 그 과정은 나의 석사논문이 되었다.

선생님 덕분에 가은이(가명)랑 카톡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매번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고 부탁드리는 게 느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팬스레 작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선생님 패스 할거예요, ^^ 가은이에게 문자 받는데 3년 걸렸네요, 그래도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가은이 엄마의 편지>

이 경험은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디지털 교육에 나를 한층 더 깊게 들여놓았으며 디지털이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반 학생들은 텔레비전 대신 유튜브를 보고 모바일 게임을 넘어 VR 스테이션에 놀러간다. 느린 학습자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사회의 빠른 변화속도가 때론 두려워지기도 한다. 디지털이 삶이 된 지금, 네모난 스마트폰과 네모난 교실 안에서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속도만 쫓아가는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삶의 조각들은 특수교사인 나에게 숙제로 남았다. 그 조각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했고 학문적 부족함을 느껴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혼자서 시작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저함이 생겼고, 동료 특수교사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결국 이 모호함과 궁금함은 나를 연구로 이끌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문화기술지의 자료는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기억자료(personal memory data), 자기성찰자료(reflective data), 인터뷰 자료(interview data), 문화적 인공물(cultural artifact)을 통하여 수집된다(김영천, 이동성, 2011). 이에 근거하여 특수교사로서 실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경험과 관련된 개인적 기억자료, 반성적 저널, 동료 특수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전사본, 수업 동영상, 각종 협의록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자문화기술지는 개인내부 자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차별성을 가진다(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2010). 따라서 나는 개인내부 자료와 자기관찰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내부 자료와 자기관찰 자료의 진실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보조자료로써 인터뷰, 각종 문서자료를 참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글의 연구목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최근 들어 발달장애학생들의 디지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교육적 시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생성된 인터뷰자료, 개인적 기억자료, 자기성찰자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생성된 질적 자료들은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범주에 해당되는 교육경험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자료로써 활용하였다. 한편, 자문화기술자는 자신과 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을 자극하고 기억의 왜곡을 차단하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Chang, 2008). 따라서 나 자신과 동료 특수교사들(4명)을 대상으로 대화로서의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의 주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동료교사와는 같은 지역 특수교사 정기 연구회 모임 이후 식사시간 및 티타임에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며, 발달장애학생과는 학교일과 중 쉬는 시간이거나 수업 중에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인터뷰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메모를 통해 화자들의 내러티브를 기록하고 전사하였다.

〈Table 1〉 Data collection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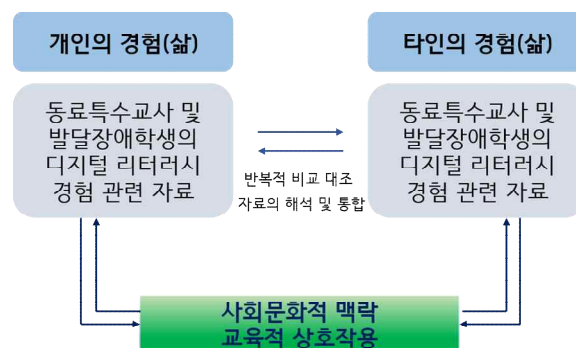
〈표 1〉 자료수집 현황

Participant	Status of data	Data collection period
researcher	reflective journal Personal memory data	2017.04.11.~2018.12.04. 2018.11.05.
special education teacher	Interview material after lesson council Teacher's Learning Community minutes of discussion	2017.06.28.~2019.04.02. 2019.03.05.~2019.03.26.
the others	lesson video student essay the same school grade teacher's minutes of discussion	2018.4.26. 2017.09.25. 2018.8.27.

한편, 자문화기술지에서 자료 분석은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가 문화로써 어떻게 자리매김 하는지 밝히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해석을 통해 경험과 이야기의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활동이 된다(Chang,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약 2년간 생성된 인터뷰자료, 개인적 기억자료, 자기성찰자료를 중심으로 발달장애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사회적, 교육환경적 변화를 밝히기 위해 Ellis(2004)의 자문화기술지 자료 분석 방법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과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자로서의 나에 대한 내부 자료들을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비교하고 대조하였으며 발췌하였다. 이러한 개인 내부 자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면담결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후 분석된 자료들을 다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체계는 3가지의 범주로 자리 잡았는데, 이 범주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경험을 통해 드러난 총체적 의미와 더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의미를 병기함으로써 이 글의 본론을 형성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석을 위하여 김영천과 이동성(2011)이 제안한 자문화기술지 방법에 적합한 코딩방법을 해석에 적용하였다. 인 비보 코딩(In Vivo Coding)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그들이 말한 문자 그대로 드러내면서 경험의 맥락과 문화적 의미를 해석했으며 감정코딩(emotion coding)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나를 비롯한 연구 참여자들의 정서와 감정을 확인하면서 나와 동료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교사로서의 심리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코딩(value coding)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나와 연구 참여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가치관 및 교육관점을 해석하고 이러한 가치가 문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였다. 또한 전사본에 대한 분석결과와 연구자인 나의 개인적 필드노트(반성적 저널, 각종 협의록)를 종합하여 자료에 대한 해석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담 내용에 대해 인용문을 통해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료의 해석과 의미를 기술하였다.



<Figure 1> Study process applying characteristics of Autoethnography methods

<그림 1>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의 특징을 적용한 연구과정

4.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의 타당도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성(2012)의 자문화기술지 평가준거에 맞게 연구결과를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자로서의 나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로부터 연구결과 의 유용성에 대해 확인(peer checking)함으로써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결과를 정교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질적 연구를 경험한 동료 연구자의 검토와 그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쳤다.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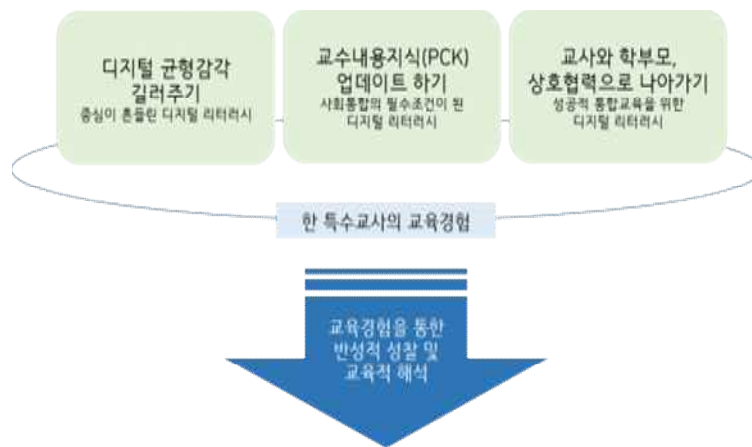
째, 나의 이야기와 타자들의 삶의 경험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즉, 문화적 분석이나 해석보다는 나의 이야기만으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맥락에서 벗어나는 과오를 피하려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교와 사회를 둘러싼 미시적 문화관점과 더불어 전체적 사회문화의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탐구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로서의 나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기 관찰 자료 이외에 다양한 참조자료(인터뷰 자료, 각종 교육자료, 동영상)를 사용하였다.

5. 연구윤리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수집되는 자료에는 동료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수업동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생 및 연구와 관련된 타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생성된 타인의 사적 정보에 대해서 동의서를 통해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 먼저 인터뷰와 관련된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본 연구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것이며, 노출되지 않더라도 맥락상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구 활용에 대한 동의를 재확인한 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생의 경우 학생의 법적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 내용에 대한 연구 활용 의사를 확인하였다. 수업동영상의 경우에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법적 보호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수업 내용에 대한 전사본,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가명처리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Ⅲ. 한 특수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경험에 대한 이야기

이 장에서는 현직 특수교사로서 경험한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였다. 첫째, 디지털 균형감각 길러주기를 통해서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발달장애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의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나의 교육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둘째, 교수내용지식(PCK)업데이트 하기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달장애학생들의 독립적 생활기술 교수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반성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이야기하였다. 셋째, 협력으로 나아가기를 통해서 디지털 사회 속 성공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주체간의 협력에 대해 나의 교육경험을 토대로 해석적으로 논의하였다.



〈Figure 2〉 Structure of research results

〈그림 2〉 연구결과의 구조

1. 디지털 균형감각 길러주기 : 중심이 흔들린 디지털 리터러시

특수교사로 살아가면서 제자로 만나게 되는 나의 학생들에 대해 그들의 최근 관심사와 흥미를 확인하는 것은 일종의 책무가 되었다. 일반교육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수교육의 특징은 개별화교육이다. 학생 개개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학생의 관심사 파악과 근황 파악은 사제 간의 관계형성의 범위를 넘어 교육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내가 느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변화는 등굣길 풍경이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이 들려있다.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생이별을 하지만 하교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들의 재회는 어느 연인들 못지 않게 애틋함을 자아낸다. 또한 아이들과의 대화 주제는 무엇으로 시작해도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기현상도 일상이 되었다. 장애유무를 떠나 이제 스마트폰은 모두의 필수품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문제는 급성장한 스마트폰 보유율만큼 과연 아이들의 디지털 활동의 질 또한 풍부하고 다양하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교사로서 나는 고민에 빠진다. 특히, 발달장애학생들의 일상 너머로 발견되는 디지털 활동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역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점점 더 퇴보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다음의 반성적 저널은 발달장애학생들의 디지털 활동과 관련된 나의 심정을 표현해 주고 있다.

00이에게 스마트폰이 스마트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00이는 유튜브 먹방을 연속재생하고, 페이스북을 파도 타며 지내겠지, 아, 어떻게 해야 발달장애 아이들



에게는 스마트폰이 정말 스마트하게 쓰여 질까? 내가 편견에 사로잡힌 것인가? 일반 학생들도 다 먹방을 보고 페이스북을 하는데,,, 하지만 분명 다르다, 어떤 지점이 다른 느낌이다, 일단 00이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말고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스마트폰의 본질적 기능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수업시간에 페이스북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페이스북을 제대로 쓸까?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2017년 4월 11일 00이와의 상담을 마친 후, 반성적 저널>

특수학급의 많은 아이들은 일과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스마트폰 및 디지털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한데 발달장애학생들이 보이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골고루 발달하기 보다는 중심을 잃고 편향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발달장애학생에게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윤리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나 교육 없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스마트폰과의 무작정 만남을 주선한 교육주체들의 과오였다.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는 특수교사인 나 또한 피해갈 수 없었다.

나는 특수교사로서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해나가야 할지 고민하였다. 특히, 발달장애학생 교육목표의 정점이 사회적 통합임을 고려할 때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를 익힐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수록 발달장애학생들이 가진 디지털 편식현상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들의 디지털 편식은 단순한 흥미와 선호의 수준을 벗어나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가시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 부분에만 초점을 두면서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발달장애학생들의 디지털 세상살이는 발전하기 보다 더 뒤쳐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수업과정에서 여실이 드러났다.

연구자: 영화관 앱 다운 받았으면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예매해볼거야, 내일 동아리시간에 영화관 가니깐 준비해보자, 00이는 유튜브 스톱모션 올린 내용처럼 어벤져스 영화 예매하면 돼,

학 생: 선생님, 앱 어떻게 다운 받는거예요?

연구자: (깜짝 놀라쳐다본다) 00아, 앱 다운 받는거 몰라?

학 생: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연구자: 선생님은 00이가 스톱모션이랑 유튜브 하길래 영화 앱 다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

학 생: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난 영화 엄마가 보여줘요,

<2018, 04, 26,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동영상 전사자료 중>

발달장애학생의 편중된 디지털 접근이 디지털 사회 진입에 방해가 됨을 느꼈다. 그 후 나는

디지털세상의 주체가 발달장애학생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활자에 갇힌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 존재하는 수업을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정보 검색 및 검색 결과에 대한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없으며 주변사람들의 검색활동을 얇은 관찰과 지식으로 습득하였음을 발견했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 특수교사로서 디지털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자부했던 나의 교육활동이 껍데기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동료 특수교사들과 고민을 나누었지만 그들 또한 비슷한 고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 : 선생님들은 아이들이랑 정보 검색이나 활용 수업을 어떻게 하세요?

특수교사 A : 체험활동 준비 할 때 종종 해,

특수교사 B : 애들이랑 요리활동 할 때 자주 하는 편이에요,

연구자 : 애들 검색수준은 어때요? 우리 반 애들 중에는 검색어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검색 해놓고 정보 선별을 못해요,

특수교사 B : 아,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에게 배배로 만들기 레시피를 검색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인터넷 쇼핑물에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왜 쇼핑물로 갔냐고 하니 제일 먼저 나온 걸 선택했대요,

연구자 : 저희반 애들도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지 저는 막막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특수교사 A : 나도 딱히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웃음) 나도 수업을 해 보니깐 아이들이 정보 선별이 안 되는걸 알았지, 검색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이니깐, 그걸 따로 막 배우지 않잖아, 근데 우리 애들은 사고과정 자체를 알려줘야 하니까 참 어려워, 사고 과정을 과제분석 하듯 해야 하는 거 아닌가?

<2018. 11. 05, A,B 특수교사와의 대화, 개인 기억자료>

웹 검색과 정보 활용 과정은 주어진 문서 내에서 단순한 클릭을 반복하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닌 스스로 탐색한 정보로부터 의미를 형성해나가야 하는 인지적 처리과정 이며 문제해결과정이다(이정은, 송준만, 2002).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발달장애학생들이 보이는 정보 처리과정에서 전이 및 일반화의 어려움이 정보 활용 과정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기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막막했다. 나의 고민에 대해 동료특수교사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발달장애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수업을 하면 할수록 교수 방법이나 접근방법에 대해 주저하고 있었으며, 규정하기엔 모호한 사고과정을 어떻게 가시화하여 가르쳐야 할지 막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나만의 고민이 아닌 특수교사들의 고민임을 발견했으며, 발달장애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에 적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교수전략과 방안을 찾아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SNS에서도 불균형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위축되고 소외되었던 발달장애학생들에게 SNS는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타인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외로움과 대화에 대한 갈증에 목말라 있는 발달장애학생에게 SNS의 자유로움과 개방성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음을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00이가 같은 반 □□에게 카톡으로 뭐하냐고 물어본 것이 시작이었다, 같은 반 친구에게 뭐하냐고 물어본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이 물음은 학교 전체 아이들에게 끊임이 없는 인사로 이어졌다, 막상 학교에서 마주치면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페이스북과 카톡을 통해 지금 뭐하냐고 물어보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왜 답을 하지 않는냐고 물어보는 00이에 대해 학년 아이들 전체가 질려있었다, 그 시간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오후든 00이는 네모난 창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다, 맹목적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보인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에 대해 던지듯 보낸 그 카톡 한 줄을 읽으며 기분이 나빠도 그래도 나에게 카톡 답을 보낸 아이라는 이유로 슬픈 답을 이어갔다, 그 내용이 나를 포함한 부모에 대한 모욕이더라도 조롱이더라도 나도 누군가와 지금 SNS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만 몰입했던 것이다, 이번 회의 결과도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도 나는 사실 중요치 않다, 교사로서 나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내가 가르친 SNS사용법이 과연 맞았을까? 그리고 과연 디지털 윤리가 수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교육인가? 디지털 세상 속에서 00이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진정한 소통을 해줄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어렵다,

<2018년 5월 11일 00이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반성적 저널>

특수교사로 나의 역할에 대해 가장 좌절하고 무기력함을 느꼈던 경험이다. 또래관계에서 만족스러운 대화 경험이 적은 발달장애학생에게 SNS의 세상은 또 다른 외로움을 느끼는 곳이 되었다. 면대면 상황에선 없었던 자신감이 SNS를 통해 생겨났지만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하면서 디지털 사회 구성원으로 보이는 겉모습에만 만족한 채 언어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이러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SNS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SNS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상호작용의 장이다. SNS가 아무리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상호작용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달장애학생들이 SNS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험이 적은 발달장애학생들에게 SNS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경험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 : 선생님 반에는 SNS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수교사 C : (한숨) 많죠, 내가 요즘 SNS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오픈채팅에서 모르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해요,

연구자 : 정말요? 부모님도 아세요?

특수교사 C : 네, 부모님께 알리긴 했는데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본인은 또래 언니라고 믿는데 그게 진짜 18살인지 성인 남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숨) 그 와중에 다른 남학생은 샤워를 하다가 자신의 신체를 찍어서 여학생에게 보냈어요, 폭대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열고 잘 마무리는 되었는데 내가 요즘 SNS를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연구자 : 맞아요, 무조건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가르치기 참 어렵죠,

특수교사 C : 이게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회적으로도 뭔가 대책은 필요한 것 같아요,

<2018, 11, 19, C특수교사와의 대화, 지역특수교사협의회 후 인터뷰자료>

SNS가 소통의 도구이자, 정보 공유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SNS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는데 반해 청소년들이 보이는 SNS 윤리양상은 타인과의 소통을 끊게 되어 이들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김양은, 2018).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내가 경험한 발달장애학생들의 SNS 문제의 근원이 SNS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NS 속 발달장애학생에 대해 예방적 접근 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으며, 그 조차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교육의 부재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상황맥락에 대한 이해와 일반화가 어려운 발달장애학생을 고려할 때 특수교사가 갖는 교육적 부담에 대해 이를 덜어줄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발달장애학생의 자기결정과 자기보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할 때 교육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디지털 문화 내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적 장치에 대한 추가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한편, SNS가 가진 위험성이 분명 존재하지만 단점에 매몰되어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한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의미도 사라진다. 다음 내가 겪은 경험은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SNS 사용을 꼭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세우게 한 사례이다.

연구자: 00이 요즘 친구들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아 보여,

00이: 네, 우리 반에 엑소팬(아이돌 팬클럽 친구들)에 저도 들어갔어요,

연구자: 우와 정말 부럽다, 근데 애들이 00이 엑소팬인가 어떻게 알았어?

00이: 내 폐북(페이스북)에 엑소 콘서트 동영상 올렸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가르쳐 준대로요,

애들이 그거 보고 알았대요,

연구자: 그랬구나, 그럼 요즘 같이 급식 먹는 친구들도 엑소팬이야?

00이: 네, 애들이랑 같이 급식도 먹어요, 애들 폐북 좋아요도 눌러줬어요, 물론 선생님 말대로

우리 학교 애들 폐북에만 해요,

<2016, 04, SNS로 친구가 많아진 학생과의 대화, 상담일지 재구성>



SNS는 분명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가졌다. 교실에 가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학생이 SNS에 올린 엑소 콘서트 게시물은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바꿈한 계기가 되었다. SNS 활동에 있어서 한 끝 차이가 아이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SNS는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의 조건을 형성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건희 외, 2013). 가깝지만 결코 가깝지 않고 서로 모르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관계 사이에 발달장애학생들이 놓여있다. SNS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익혀야 할 새로운 생활기술이자 사회적 기술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교수내용지식(PCK) 업데이트하기 : 사회통합의 필수조건이 된 디지털 리터러시

특수교사는 수업경험을 통해 각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장애학생의 교육은 일반적인 교과 내용적 지식과 더불어 개별적 장애 특성과 그들이 속한 환경에 대한 상황적 지식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특수교사의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은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반성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유리와 박승철(2011)은 교수내용지식이란 교사가 알고 있는 교과의 내용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지식이라고 하였으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사 자신이 갖고 있는 교과에 대한 배경 지식과 학습 환경에의 고려를 통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사의 종합적인 지식이라고 하였다. 즉 특수교사의 교수내용지식은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설계하여 교과 활동을 이해함과 동시에 학습한 내용을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수교사의 교수내용지식은 사회의 변화에 밀접해 있으며 이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최전선인 교실에서 특수교사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러한 변화는 교수내용지식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디지털 사회의 등장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의 물결은 교사인 나에게 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졌으며 그 사회를 함께 살아가야하는 발달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기존의 교육내용만으로는 사회통합이 불가능함을 사회는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었다. 이는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느껴졌다. 즉, 같은 주제를 다룬 수업이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르쳐야 하는 기능적 기술이 달라졌음을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O : 정말 재미있었다,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주문하는 거 연습했는데 기계로 해야 해서 당황했다,

△△: 볼링 이겨서 좋았음, 맥도날드 기계가 카드만 받아서 주문 못한건 아쉽다,

아이들과 교내 창업대회를 통한 수익으로 볼링장에 간 것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애들에게 맥도날드 점원에게 주문하는 방법을 그렇게나 열심히 연습시켰는데 아이들 앞에 나타난 무인 주문기계를 보면서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다. 세상이 변화했음을 또 놓쳤다. 분명 지난달에 맥도날드 가서 내 손으로 무인기계로 주문했으면서 왜 그것이 나의 아이들의 세상이며 내가 가르쳐야 하는 생활기술임은 잊었을까? 왜 나는 아직도 수업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는가,
<2017. 09. 25, 외부체험활동 후 학생 소감문을 근거로 한 반성적 저널>

나의 부끄러운 고백이자, 특수교사로의 삶이 수업의 모든 단위가 됨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다. 디지털 사회의 도래는 교과를 막론한 여러 활동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는 교수내용지식 차원에서 특수교사가 고려해야 할 새로운 교수내용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교수내용지식만으로는 수업전문성을 기르기 어려워졌으며, 지속적으로 사회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수업에서 다뤄야 할 새로운 역량과 기술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특수교사의 교수내용지식은 교실을 떠날 때까지 변화할 것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가 아닌 삶을 연결하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달장애학생이 습득해야 할 기능적 생활 기술도 변화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며 필요한 정보를 평가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하는 기술이 요구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다(김종윤, 서수현, 김인숙, 조병영, 김지연, 유상희, 김희동, 오은하, 옥현진, 2017). 즉,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사회에서 필요했던 지식과 기능, 사회참여와 비슷하지만 확연히 차별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어려움으로 우연학습이 쉽지 않은 발달장애학생들에게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교수내용지식은 이제 전반적 수정과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수교사의 교수내용지식의 재구성 및 수업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특수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개별적 요구를 가진 장애학생을 위해 수업설계를 함에 있어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추고 이를 창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함을 의미한다(박남수, 서선진, 박경옥, 2012). 하지만 특수교사의 수업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은 부족해 보인다. 특히 디지털 사회 및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되어 특수교사들이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나 연수가 부족하며, 존재하더라도 공유되지 않고 있음을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특수교사 A: 과제분석만으로 한계를 느껴요,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수업 내용들이 어떤 행위나 행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과정을 통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교수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한 특수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 발달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연구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정보 읽고 판단했던 과정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알려줄까 해서 과정을 쪽 써보면 말로는 참 설명하기 힘들더라고요,

특수교사 A: 그러니까 이게 특수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집단 지성이 필요해요,

연구자: 연수나 수업 나눔 같은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업관련해서, 왜 특수교사

연수는 늘 수업보다는 그 외의 부차적인 것들로 채워지는지 속상해요,

특수교사 A: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는 더더욱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교육에서 시도하는

연수나 수업 방법 등을 보긴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는데 한계도 있어요,

연구자: 그러게요, 분명히 다들 하고 있을 텐데 공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유하고

싶지 않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다들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

<2018. 10. 29, A특수교사와의 대화, 지역특수교사협의회 후 인터뷰자료>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가 바람직한 교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교직능력 및 인간적 자질의 습득정도를 의미하며, 이것은 학습지도, 학생지도 및 학급경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 운영, 현장실습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발달장애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가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내용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연수활동 등의 재교육 과정을 통해 특수교육교사가 가진 전문성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전문성 인식 수준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정윤우, 2014).

이를 바탕으로 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원격연수, 관련 자료 개발 등에 참여하였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부터가 필요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립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하위 영역을 생각해 보면 디지털 접근성, 정보 활용, 윤리로 나뉘는데 이 광범위한 영역들을 특수교사 혼자서 교과와 연결하여 가르칠 수 있을까? 접근성은 공학과도 연결되어야 하고, 아이들 장애영역에 따라 요구가 다른데 책에서 얻는 지식이 아닌 현장교사의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이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는 컨설팅이나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서 경험을 공유해야 하는 것 인데 과연 특수교사들은 얼마나 함께하고 있을까? 특수교사들의 수업 나눔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과연 그 문을 열 수 있을까?

<2018. 12. 04, 반성적 저널>

디지털 리터러시는 교과영역으로 국한되기 보다는 모든 교과 교육에 바탕이 되는 개념이기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각 교과영역에 접목하여 디지털 사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수내용지식을 재구성하고 수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특수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들 간의

집단 지성이 필요함을 느꼈다.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발달수준에 맞게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업활동을 운영해야 한다(이유리, 광승철, 2011). 그러므로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수업의 변화를 특수교사 혼자서 감당하고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학습공동체, 컨설팅 장학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사회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단순히 활용의 차원이 아닌 교수내용지식의 관점에서 혁신적 변화를 이뤄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 개념이 분리되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바탕이 되는 개념이며, 어떤 교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최종 목표는 사회적 통합이다. 결국 특수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교수내용지식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생활기술지도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나는 동료 특수교사들과 학습공동체를 만들었다.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할 교사를 만나며 나는 대화를 통해 운영의 방향과 더불어 나의 생각이 결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님을 깨달았다.

연구자: 제가 너무 나서서 걸까요? 제가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히려 다들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교사B: 그 용어가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전문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요, 영어잖아요.(웃음)
선생님처럼 박사공부 하는 사람이 이야기 하니깐 더 어렵게 느껴져요,
연구자: 정말 그게 아닌데요,(웃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거든요, 디지털 리터러시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수업을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수업이야기를 하다보면 요즘 시대엔 디지털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교사C: 그 말은 맞아요, 온 세상이 디지털이야, 저도 얼마 전에 화폐 수업 하면서 종이돈이랑 같이 체크카드, 앱카드까지 알려줬어요, 우리 반에 앱카드 쓰는 애가 있어서 내가 덕분에 앱카드 하나 만들었잖아, 매일이 변화라는 말이 맞아요,
연구자: 그래서 수업부분도 혼자서 바꾸긴 어려워서 다른 특수교사들이랑 함께 수업을 나누고 싶은 장이 필요하단 생각했어요, 그게 딱 교원학습공동체더라고요,
교사B: 걱정 말아요, 다들 시작할 자신이 없어 그렇지 말은 안 해도 수업고민은 하니깐, 분명 함께 하자고 하면 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교사C: 벌써 우리 셋이잖아요,
〈2019. 03. 05, 수업공동체 발족 관련 동료특수교사들과의 대화, 협의록 재구성〉

우려와 달리 주변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많은 특수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양한 경력의 교사가 한데 어우러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부끄럽지만 나의 수업을 공개하면서 활동 보따리를 풀어놓자 다른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우선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방향을 돌아가면서 안내했다. 내 순서가



되자 나는 학급 운영 목표인 “짧이 짧이 되는 수업”을 이야기했고, 우리 반 학생들의 개별 화교육계획(IEP)을 근거로 하여 현재 필요한 삶의 기술을 바탕으로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급에서 이루어진 수업과 활동이 어떻게 가정과 사회로 연결되어야 할지 이야기 나누면서 각 활동에 녹아든 디지털 리터러시 요소에 동료특수교사들의 질문과 호기심, 교육경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학교당 1~2개인 특수학급이라는 작은 규모에 간혀 교수내용지식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공유할 기회를 열지 못했지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집단지성은 교수내용지식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상호보완적이며 효율적이었다.

연구자: 요즘 저는 저희반 아이들이랑 학기 초 자신을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를 교우 관계랑 연결해보고 직업과도 연결해서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와 직장을 구할 때 자기소개 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보았어요,

특수교사 B: 그 결과는 어때요?

연구자: 아이들은 친구에 대해서 페이스북 프로필을 참고하더라구요, 사실 교과서처럼 자기소개 안한지 오래되었잖아요, 안녕 나는 00이고 취미는 00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SNS프로필을 활용한 자기소개로 방향을 바꿨어요,

특수교사 B: 그런데 조심스러운 게 개인정보와 자기소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른 자기소개의 내용정보를 변화시키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에 대한 조심성을 강조해줘야 할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 익명 어플이 뭐예요? 우리반 00이가 그걸로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서 ...

특수교사 D: ASK fm이라는 어플이에요, 애들이 대부분 페이스북으로 연동시켜서 쓰는데 괴롭히고 싶은 상대의 에스크를 찾아 질문을 빙자해 욕하는 걸로 많이 사용해요, 가급적 ASK fm어플은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관리 들어가셔야 해요,

<2019, 03, 26, 교원학습공동체 첫 모임 수업 나눔 대화, 협의록 재구성>

첫 교원학습공동체 모임에서 수업 나눔을 통해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바탕에 디지털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암기하여 길러지는 역량이 아닌 실천을 통해 완성해나가야 하는 다시금 인정하는 자리였다. 특히 발달장애학생들이 디지털 사회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생활 기술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통합과 독립적 생활이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박은영, 신인수, 2011). 그러므로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배운 내용이 충분히 실천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활동과 발달장애학생의 일반화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관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해진 이론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하더라도 수개월 내에 새로운 변화로 인해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이 될 것이다. 지식과 정보는 매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한 특수교사들의 개별 경험이 바탕이 된 실천적 지식이 필요하다. 비록 첫 모임이긴 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한 교사들이 디지털과 교실수업의 융합을 이끌어내면 동시에 경력교사들이 이들의 새로운 교육적 시도에 대해 비판이 아닌 학습의 관점에서 그 당위성과 효과를 점검하여 교육적 의미를 완성한 이 작은 경험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바꿔나가는 나에게 매우 큰 자신감을 가져다주었다.

3. 교사와 학부모, 상호 협력으로 나아가기 : 성공적 통합교육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은 승부의 내용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쟁 구조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인류에 대한 위기, 불안감이 교육으로 향했다. 즉,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에 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교육에 대한 혁신을 촉구하였다. 특히, 2016년에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명명하면서 이를 위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교육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와 교실은 매년 신입생의 입학으로 인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제로 인한 일시적 변화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용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 현상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매년 만나는 신입생들은 사회·문화적 영향, 구성원의 영향으로 인해 해마다 다른 학년 분위기를 보이며 재학생들 또한 성숙이라는 자연적 변화를 통해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시대적 변화라는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교실 속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과 행동, 생각에 맞게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구성원으로서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외부자인 나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실은 지금 이 순간도 변화하고 있다, 교실에는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감각한 교사라도 아이들의 반응을 외면할 수 없다, 수업방식과 활동에 변화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요즘 아이들이다, 그렇기에 이제 와서 외부에서 교육에 주는 압박감이 좀 오들갑스럽다, 교실은 변화를 꿈꾸고 실행하고 있는데 정책이나 제도가 뒷받침 하지 못하는 것임을.... 왜 화살은 일선의 교사들에게 돌아올까? 특수교사인 내가 봐도 수업의 변화는 이미 오래전 시작되었다, 오히려 각 교과 수업의 변화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특수교사가 아닌가, 요즘 수업들은 아이들이 협력하고 이야기 나누고 대안을 수립하는 등 고차원적 사고를 해야 하는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발달장애학생들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특수교사로서 우리 반 아이들이 각종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은 키워줬는가?

<2018. 06. 20, 반성적 저널>

통합학급의 수업이 협력과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학습자중심수업이 되어감에 따라 그 교실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발달장애학생이 또래와 어울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줘야 한다. 과거에는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리에 잘 앉아있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등의 물리적 참여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의미 있는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발달장애학생 또한 갖춰야 하는 역량이 늘어났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필기하는 수업은 끝났다. 이제는 타인과 소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활동, 협력하여 함께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는 교실 수업에서 발달장애학생 또한 무임승차가 아닌 작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합학급의 수업이지만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수교사 A: 선생님 학교에 요즘 융합수업 많이 하죠?

연구자: 네, 저희 학교 1학년이 음악시간과 국어시간 융합해서 랩 만들기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학년 00이 반에 함께 했어요,

특수교사 A: 어머 재밌었겠다, 어떻게 했어요?

연구자: 국어시간에 00이가 특수반에서 수업하는데 음악시간에는 통합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는 국어시간에 통합 했어요, 사전에 저랑 국어선생님이랑 00이 수준에 맞게 논의는 살짝 했어요, 00이가 모둠아이들이랑 역할에 대해 논의해서 비트에 맞게 한줄 정도 적어야 하고, 00이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특수교사 A: 어떤 내용을 적었어요? 혼자 하던가요?

연구자: (활동지를 보여주면서) 친구들이 먼저 적은 가사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해서 비트단위로 가사를 어떻게 쓸지 사전에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그대로 학급에 보냈어요, 국어 선생님이 마무리를 좀 봐주셨죠, 스마트폰 촬영하는 것은 00이가 유튜브 촬영 좋아하니깐 꾸준히 알려줬었어요, 음악선생님에게 00이가 각도나 흔들림 없이 하는지, 그리고 NG 날 때 힘들어하니깐 그 부분만 신경써달라 부탁드렸어요, 저도 음악시간에 잘 하고 있나 다녀와 봤어요, 잘했어요,

특수교사 B: 요즘 워낙 랩을 좋아하니깐, 우리 반에도 랩 잘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우리도 음악시간에 그런 거 하면 좋아하겠단, 선생님들끼리 소통이 잘 되니까요,

<2019. 04. 02, A특수교사와의 대화, 지역특수교사협의회 후 인터뷰자료>

이러한 나의 경험은 일반교사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합학급 수업의 변화는

발달장애학생이 통합하는데 있어 훨씬 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나는 다른 교사들과 소통을 하면서 교사로서 함께 수업을 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수교사로서 가질 수밖에 없던 한계를 넘어섰다. 융합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 간 협력을 위해 챙겨야 할 요소가 늘어나면서 심리적 부담은 컸지만 나의 수업시간이 해당 학생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면서 물리적 시간은 동일했다. 그리고 융합수업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통합학급 수업 내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다수 학생들은 자신의 작사활동을 위해 다양한 검색활동을 자연스럽게 진행하였고 모둠의 비트를 고르거나 또는 제작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하면서 저작권, SNS활용 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가 배움과 생활에 바탕이 되었음을 내 눈으로 확인한 경험이었으며 그렇기에 더욱 발달장애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함을 깨달았다.

한편, 디지털 사회는 교사들에게 생활지도의 난이도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중2병과 관련된 다양한 속설들은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사춘기의 질풍노도를 표현해주는 적절한 예이다. 학교 급에 따라 각각의 속사정이 존재하겠지만 중학교 교사로서 감수해야 하는 생활지도의 벽은 갈수록 높아지는 느낌이다. 이는 특수교사인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발달장애학생들의 디지털 매체의 노출은 일반 청소년과 다름이 없다. 다만,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의 경험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디지털의 문은 너무나 무방비한 상태로 열렸다.

특수교사 B: 선생님 학교에 00이 카톡 감옥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연구자: 예휴, 말도 마요, 아직도 해결중이에요, 이게 너무 서로 얽혀있어서..

특수교사 B: 지난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스마트폰 확인이에요,

연구자: 확인이요?

특수교사 B: 카톡 감옥 문제 초기에 우리가 해당 아이들 카톡 스크린샷 하고 전체에게 사건 조사 중에도 계속되면 가중조치 된다는 걸 고지하니깐 그나마 일파만파 퍼진 것은 없었거든요,

연구자: 요즘 통합학급 반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SNS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특수교사 B: 그니깐 장애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담임교사, 사안담당교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조사자체가 불가해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특수교사에게 떠넘기느냐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연구자: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학급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특수교사가 다 해요,

특수교사 B: 공조가 서로 잘 되면 너무나 좋지만 특수교사의 몫이라고 떠넘길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무겁죠, 하여튼 스마트폰이 생긴 후로 더 피곤해진 건 사실이에요,

<2017. 06. 28, B특수교사와의 대화, 지역특수교사협의회 후 인터뷰 자료>



디지털이 일상화 되면서 아이들의 갈등은 더 세분화되고 심화되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사이버 폭력은 내가 생활지도를 하는데 난항을 겪었던 새로운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발달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상황적 맥락이나 자기방어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SNS 언어폭력 등에 노출되기 쉽다. SNS나 사이버공간이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모두의 공간일 수 있는 모순적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SNS 관련 생활지도는 특수교사인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또한 SNS가 가진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학생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가해행동은 예방적 접근과정에서 모방의 문제를 가질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웠다. 무엇보다도 교사인 내가 문제를 파악했을 때에는 이미 모든 문제가 발생한 뒤에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 접근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 SNS 상대가 통합학급 친구인 경우가 많아서 통합학급 학생들을 파악하거나 라포를 형성할 기회가 적은 특수교사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 학생과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동시에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및 관련 교과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등 전 교사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하며 공동의 모니터링 역할이 필요하다 판단하였고 다행히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이 나만의 학생이 아닌 모두의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협력해서 생활지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각종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사용양상 및 관련 정보에 대해 특수교사가 교육하고 모니터링 해야 할 영역이 늘어나면서 나의 역할증가로 인한 피로감이나 한계를 경험하였다. 나는 디지털 세상 속 발달장애학생의 발자취를 확인하기 위해 아예 발달장애학생의 활동에 함께 하기도 하였다. SNS를 통해 학생의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같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서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고 라포가 형성되어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한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특히, 가정에서의 협력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역할의 혼미는 가중되었다.

일반교사: 00이 유튜브 관련해서 있었던 폭대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로 내린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연구자: 유튜브 관련된 윤리교육이 필요한데 마땅한 외부 기관 찾기가 어려워서 일단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00이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웃음)

일반교사: 00이 구독자 늘어나서 좋아하겠네.(웃음) 이제 교사가 유튜브 관리까지 해줘야 하는 세상이 왔네, (한숨) 그런데 유튜브 집에서 매일 본다면, 가정에서 관리를 함께 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연구자: 그러게요, 가정에서의 관리가 함께 필요한데, 여건상 쉽지가 않네요.

<2018. 8. 27, 일반교사와의 대화, 학년협의회 협의록 재구성>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와 교사 및 전문가들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의사소통 할 때에 효과적인 교육을 이룰 수 있게 된다(안도연, 김병석, 2007). SNS 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는 가정과의 협력적 지도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정과의 협력이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특수교사가 홀로 담당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나는 교사라는 책임감에 묶여 역할에 대한 흥미를 경험했다. 퇴근 후 온라인 초과근무를 24시간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방과 후 일과에 대해 교육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부모의 역할을 교사인 내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과 매체의 특성상 교육의 장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사가 담당하는 역할과 부모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기반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디지털 매체와 SNS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청소년 문화에 근거하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교사와 학부모의 당근과 채찍이 순환되며 이루어질 때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건강하게 길러질 것이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여러 교육 계획 논의에서도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소통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는 필수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김종윤 외, 2017).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 또한 이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통합을 의미한다.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전문성 계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발달장애학생의 자기조절과 사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IV. 나가며

이 연구는 특수교사로서 발달장애학생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자문화 기술지 연구방법을 통하여 기술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양상을 알 수 있었고, 교수방법 및 수업변화를 위한 노력, 협력적 접근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이야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몇 가지 논의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불균형적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과 소통의 기반이



되는 SNS에 대한 윤리교육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역량이 된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수내용지식을 업데이트 하여 사회적 변화에 맞는 살아있는 수업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가진 교사가 될 수 있었다. 셋째, 디지털의 등장은 교육과 수업을 변화시켰으며 이는 통합교육을 이루는 새로운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협력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하며 이는 수업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가 함께 해야 함을 경험하였다. 나는 이러한 교육경험에 대해 반성적 시각에서 성찰함으로써 디지털 사회에서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역할과 특수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나타내고 싶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고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안적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체계를 수립하고 기능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김수환 외(2017)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하위요소는 대체로 기술적 접근, 정보 및 문제해결 접근, 디지털 시민성 및 윤리적 접근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는 여러 요소가 균형적으로 발달되어야 그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요소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발달장애학생의 생활범위와 인지수준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학생을 초점에 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내용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였을 때, 현재 발달장애학생들이 보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하위영역이 골고루 발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개인 관심사와 흥미위주로만 사용하는데 디지털 사회의 발전을 고려하였을 때 발달장애학생들의 인지적 수준, 사회적 기술을 고려한 균형 잡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 및 수정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내용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김창배(2018)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학생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도시 사회 활동에서 타인의 지원을 받아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통합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발달장애학생의 기능적 활용과 사회통합을 근간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 방법에 있어서 지식 전달식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문제중심해결학습(PBL), 액션러닝(Action Learning)등 발달장애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중심 교수방법을 갖춰야 하며 이를 다양한 생활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관련 활동개발 및 교수자료 보급이 시급하다.

둘째, 현실을 반영한 SNS 윤리교육을 실현하고 발달장애학생의 SNS활동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원은 발달장애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의 장이 될 수 있다(김건희 외, 2013). 하지만 발달장애학생의 무분별한 SNS 사용은 또래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 생활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나눴는지 못했던 발달장애학생들 중에는 SNS에서 관계 맺기에 집착하거나 무분별하게 대화를 시도하여 SNS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었다.

박성훈과 심현정(2015)은 청소년의 SNS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비장애 학생 뿐 아니라 발달장애학생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상황 판단 및 예측력이 부족한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는 SNS 윤리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모방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한 윤리교육을 하되 동시에 이들의 SNS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때, 발달장애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적 지원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가정과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특수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만난 특수교사 대부분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에 대해 낯설어했다. 이들은 나와의 대화를 통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였으며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교사교육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지원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교육의 질과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교사의 질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김영한, 한현정, 2012). 그러므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의 형태로는 교사 연수, 수업 자료 개발, 관련 컨설팅, 교사학습공동체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특수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교수내용지식(PCK)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수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은 교수적 수정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박선향, 박수경, 2016). 그러므로 특수교사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내용지식(PCK)을 갖추어야 발달장애학생의 개인 특성에 적합하고 환경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되어 협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교육 지원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한사람의 몫이 아닌 모두의 몫임을 알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 환경은 통합학급, 특수학급, 가정,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는 장애학생이 학교생활과 학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으나 각자의 입장과 역할에 따라 다른 태도를 가진다. 이는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



이며, 부모의 협력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체제는 디지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빠르게 대처해야 하고 꾸준히 지도해야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가 사회적 통합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접근 또한 통합교육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학생의 건강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통합학급 수업참여와 또래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특수학급 수업을 통해 개별 학생의 역량에 맞는 다양한 정보 탐색과 활용의 기회가 확장되며 가정에서는 건전한 여가생활과 사회와의 새로운 연결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시키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내·외적 경험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는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가 주관적이다. 즉, 특수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개인적 경험 외에 동료 특수교사, 장애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특수교육이라는 교육환경과 디지털시대라는 사회적 맥락의 관점에서 경험을 총괄하여 담론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장애학생, 일반교사, 부모를 포함한 다각적 측면에서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의미와 방향성을 논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n, D. Y., Kim, B. S. (2007). A Grounded Theory Study of The Teacher and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Collabor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4(2), 233-258.
[안도연, 김병석 (2007). 장애학생 부모가 인식하는 교사와의 협력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특수교육연구**, 14(2), 233-258.]
- An, J. I., Seo, Y. J., Kim, S. M. (2013). The Digital Citizenship among Adolescents-the Effects of Media Literacy Competence and the Experience of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5(2), 161-191.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 :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 경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2), 161-191.]
- Chang, H. (2008). *Autoethnography as method*.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Inc.

- Ellis, C. (2004). *The ethnographic I: A methodological novel about autoethnography*.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Gilster, P. (1997). *Digital literacy*. New York: Wiley Computer Publications.
- Jung, Y. W. (2014). Analysi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Influenc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9(2), 179-196.
- [정윤우 (2014). 특수교육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9(2), 179-196.]
- Kang, Y. A., Shin, H. K. (2019). A Study on Autoethnography in Inclusive Classroom Management of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4(1), 1-28.
- [강윤아, 신현기 (2019). 초등학교 교사의 통합학급 운영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통합교육연구**, 14(1), 1-28.]
- Kim, C. B. (2018). Analysis of smart phone application type and function support needs in urban social activity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0(1), 61-90.
- [김창배 (2018). 발달장애학생의 도시 사회활동 상황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기능 지원 요구 분석. **지적장애연구**, 20(1), 61-90.]
- Kim, G. H., Jo, J. M., Kim, S. H., Seo, S. J. (2013). A Study of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Applications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52(2), 321-339.
- [김건희, 조정민, 김소현, 서석진 (2013). 발달장애학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2), 321-339.]
- Kim, J. Y., Seo, S. H., Kim, I. S., Jo, B. Y., Kim, J. Y., Yoo, S. H., Kim, H. D., Oh, E. H., Ok, H. J. (2017). A Preliminary Expl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Literacy Assessment Focused on Cognitive Domain.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62, 7-39.
- [김종윤, 서수현, 김인숙, 조병영, 김지연, 유상희, 김희동, 오은하, 옥현진 (2017). 디지털 리터러시의 인지적 영역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청람어문교육**, 62, 7-39.]
- Kim, S. H., Kim, J. H., Kim, H. Y., Lee, W. J. (2017).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igital Literacy to Curriculum*. KERIS research report, KR 2017-4.
- [김수환, 김주훈, 김해영, 이운지 외 (2017). **디지털리터러시의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KR 2017-4.]
- Kim, S. Y., Lee, M. S. (2016) The Experiences on Using Tablet PC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Special School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3(2), 315-327.
- [김석연, 이미숙 (2016). 특수학교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태블릿 PC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23(2), 315-327.]



- Kim, S. S. (2016).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chool bullying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8(3), 1-21.
[김삼섭 (2016).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유형과 특성. *지적장애연구*, 18(3), 1-21.]
- Kim, Y. C., Lee, D. S. (2011). An Inquiry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Autoethnography.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9(4), 1-27.
[김영천, 이동성 (2011).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19(4), 1-27.]
- Kim, Y. E. (2018). A Study on Education Program of Social Media Literacy -Focused on Elementary Student-. *Journal of Cyber Education*, 12, 23-30.
[김양은 (2018).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 구성 예비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연구*, 12, 23-30.]
- Kim, Y. H., Han, H. J. (2012). Relationship analysis of teacher's efficacy and commitment to teaching profession in accordance with recognition of special class teachers' professionalis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1(1), 91-108.
[김영한, 한현정 (2012). 특수학급 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따른 교사효능감 및 교직헌신도의 관계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1), 91-108.]
- Klaus Schwab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oul : a new present Publications.
[클라우스 슈밥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 Lee, D. S. (2012). *Quality Research and Autoethnography*. Paju : Academy Press.
[이동성 (2012). *질적연구와 자문화기술지*.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Lee, J. E., Song, J. M. (2002). A study on the learner's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Web searching process of student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Special Education Research*, 1, 7-28.
[이정은, 송준만 (2002). 경도 정신지체학생의 웹 정보검색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요인에 관한 고찰. *특수교육*, 1, 7-28.]
- Lee, Y. R., Kwak, S. C. (2012). Implication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for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3(3), 21-47.
[이유리, 광승철 (2011). 교수내용지식(PCK)의 특수교육에 대한 함의. *특수아동교육*, 13(3), 21-47.]
- Lee, W. H., Kwak, S. C. (2014). An Autoethnography on the Inclusive Education Awareness and Perspectives of a Parent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3(1), 105-135.
[이원희, 광승철 (2014).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통합교육 인식과 관점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특수 교육학연구*, 53(1), 105-135.]

- Nam, M. Y., Lee, M. S. (2017). Experiences and Recognition of Special School Teachers on Leisur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9(3), 1-22.
[남미영, 이미숙 (2017). 특수학교 교사의 발달장애학생 여가교육에 대한 경험 및 인식. **특수아동 교육연구**, 19(3), 1-22.]
- Park, G. S. (2013). An Autoethnography on the Advisory Experiences in Applying School 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Journal of emotion & behavioral disorder*, 29(4), 361-397.
[박계신 (2013).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자문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정서·행동장애 연구**, 29(4), 361-397.]
- Park, E. Y., Sin, I. S. (2011). The Effects of Transitional Education Programs on Adaptive Behavior in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eta-Analysis. *Disability & Employment*, 24(1), 155-185.
[박은영, 신인수 (2011). 발달장애학생의 적응행동에 대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장애와 고용**, 71(2), 59-78.]
- Park, N. S., Seo, S. J., Park, K. O.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Teacher Instructional design Model*. Chung-nam : NISE.
[박남수, 서선진, 박경옥 (2012). **특수교육 교수설계 모형 개발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Park, S. H., Park, S. K. (2016).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instruction adaptation and practical knowledge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8(1), 171-199.
[박선향, 박수경 (2016). 특수교사의 교수내용 지식과 교수적 수정 및 실천적 지식과의 관계분석. **교육방법연구**, 28(1), 171-199.]
- Park, S. H., Sim, H. J. (2015). Examining the Risk Factors of Cyber Bullying with SNS among Korean Youth.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24(1), 155-185.
[박성훈, 심현정 (2015). SNS에서 청소년 사이버 불링의 특징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 행정학회보**, 24(1), 155-185.]
- Park, S. Y., Chang, H. W., Jo, M. A. (2010). Autoethnography: Exploration of its value as a research methodology in anthropology an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13(2), 55-79.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55-79.]



<국문초록>

한 특수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 발달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지 정 훈* · 곽 승 철**

이 연구는 특수교사로서 발달장애학생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한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한 특수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양상을 확인하고, 교수활동 변화를 위한 노력, 협력적 접근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향과 체계성 맥락과 관련지어 이야기하고자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론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달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불균형적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기존의 교수내용지식을 업데이트 하여 사회적 변화에 맞는 살아있는 수업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가진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디지털의 등장은 교육과 수업을 변화시켰으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통합교육을 이루는 새로운 요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교육경험에 대해 반성적 시각에서 성찰함으로써 디지털 사회에서 특수교사의 역할과 특수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 발달장애학생, 특수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자문화기술지

논문접수 : 2019. 04. 28 / 논문심사일 : 2019. 05. 18 / 게재승인 : 2019. 06. 04